

광주시, 문화수도 명성찾기 사업 속도 낸다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추진 본격화

양림동 공예거리 활성화·무등산 문화거리 조성 TF 운영

광주시가 문화수도의 위상을 찾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참여·실현·누림·번영·포용 등 5대 가치를 반영한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육성 정책을 진행 중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수시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뜻을 묻고 문화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특별 주간을 거쳐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을 발표했다.

'함께 참여', '함께 실현', '함께 누림', '함께 번영', '함께 포용'을 핵심 가치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게 목표다.

시는 4월부터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을 운영해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

으며,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활성화를 목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입주공방 임대료 감면 조치, 담장벽화와 야간조명 및 음향설비 개선 등 거리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월부터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보조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 개선 협업팀(TF)을 운영해 보조사업 정산 간소화 방안, 청년 예술인 지원확대 방안, 문화예술 단계별 맞춤형 지원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시, 동구청, 광주관광재단, 사립 미술관 등과 함께 무등산 문화거리 조성 실무 협업팀(TF)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무등산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구체화한다.

예술단체의 공연영상, 문화행사, 문화일자리, 문화예술지원 등 광주의 모든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인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 같은 정책 추진 상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합 플랫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정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공개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 전남도, 9월까지 농장 점검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가금농장 일제 점검과 함께 11월까지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가금 전농장 699호다. 추중별로 점검기를 구분해 1차로 7월까지 전체 가금농장 점검을 완료한 후, 미흡 농장은 9월 말까지 재점검한다.

전실, 방역실, 울타리, 그물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과 출입구 차량·대인 소독시설 등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AI 발생농장에서 확인한 방역 미흡사항 및 권고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방역의무 위반 농장은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등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취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재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조사업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의 소독 효과 극대화하도록 방역시설 최신화를 위한 개선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축사 입구와 마당·둘레 소독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도 자체 사업비 45억 여원을 투입한다.

전도원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장은 점검에서 확인한 미흡사항을 동절기 이전에 보완하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방역시설 개선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출씨 선임

전남도가 4차례 공모 끝에 전남문화재단 민간 대표이사에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를 역임한 김선출(63·사진)씨를 선임했다.



신임 김 대표이사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지역 신문기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번 4차 공모에는 문화예술인과 퇴직 공무원, 교수, 언론인 출신 등 11명이 응모했다.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재단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추천했으며, 김 지사가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전남도는 3차 공모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나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해왔었다. 이번 4차 공모에서도 '적격자 없음' 여부를 검토했으나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명장의 전당' 공개 산업·공예 등 72명 현액

산업, 공예 등 각 분야 명장의 자취를 살필 수 있는 광주시 명장의 전당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막식과 함께 공개됐다.

명장의 전당은 지역 장인들의 정신과 삶을 알리는 자리로 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통 공간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중앙홀 벽면에 가로 6.8m, 세로 4.6m 규모로 구축했다. 기계, 패션, 디자인, 공예 등 대한민국 명장 16명, 품질 명장 41명, 광주시 명장 15명 등 72명이 현액됐다.

인물 부조 동판, 명장의 경력과 활동 실적을 담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도 설치됐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광주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15년 이상 경력의 숙련 기술자 5명 안팎을 선정해 기술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선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명장의 전당' 제막식에 참석해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지역 명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9차례 전입, 2년 사이 부동산 6곳 매입" 질타

광주시의회, 복지연구원장 청문회

광주복지연구원장으로 내정된 정성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다수의 전입과 고액의 채무가 논란이 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과거 39차례 전입 신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개월에서 1년 사이 반복적으로 전입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정 후보자를 직격했다. 이 의원은 또 "2014년 9월 봉선동, 2014년 12월 각화동, 2015년 4월 배우자의 양산동, 2015년 11월 삼각동 상가 등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부동산 6곳을 매입했다"면서 "2016년 8차례 부동산 분양권 매매가 있는데, 시민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산 신고액이 18억5000만원인데 이 가

운테 채무가 15억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직장 문제 등으로 서울과 광주를 옮겨 다니면서 전입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채무 문제는 "최근 4년 동안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없다. 모두 생계형이다.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집 한 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용선 광주시장과의 인연에 대한 장영주 의원의 질문에는 "캠핑에 간 적은 있다. 4~5가지 제안하고 정책이 반영됐다. (이 시장이 저의) 얼굴을 기억은 못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화대 아동복지과 조교수, 장흥노인전문 요양원장 등을 지냈다. 시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이 시장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시민 자전거 사고 나면 최대 1000만원 보장해 드려요

시, 모든 시민 보험 가입 전기자전거 이용자도 혜택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은 별도 개인 가입 절차 없이 광주시민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며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입원 위로금 1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최초 진단기준) 10만~50만원 등이다.

자전거 이용 중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 제외)도 보장받는다.

광주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